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7, 하스모니안 반란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하스몬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스모니안 반란(Hasmonean Revolt)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배경과 이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기원전 200년경, 즉 기원전 204~200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탈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발전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싼 세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항하여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글썄, 그들은 언덕 반대편의 잔디가 항상 더 푸르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일어난 일은 그렇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대부분 과세에 관한 한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빨리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인과의 전투에서 그리스인을 돕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로마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중 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은 로마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를 다시 대속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글썄요, 로마인들은 승리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인들에게 지불해야 했던 돈의 액수는 실제로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시대에 유대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나쁜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에는 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발전에 특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해가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헬레니즘파는 예루살렘을 폴리스로 전환시키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스로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레니즘 개혁이라고 불리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카베오서에는 그 당시 어떤 사악하고 무가치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시 연합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분리된 이후로 우리에게 닥친 것은 오직 재앙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도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할례를 취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멀리까지 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포경수술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 오니아스 2세의 동생인 야손은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170년에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안티오코스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뇌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대제사장이 다른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가문 출신이고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왜 안돼? 글썄요, 제이슨은 예루살렘을 폴리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싶어하며 그의 간청을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인이나 대학 총장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이것이 도시로서 우리에게 가져올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것은 아주 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이 시기에 제이슨 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이아손이 훨씬 더 급진적인 유대인인 메넬라오스라는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메넬라오스는 아론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사실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그는 사제직을 일종의 정치적 전당포로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사제 계통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메넬라오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제사장으로 이끌고 있고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코스에게 전적으로 빚을 지고 있으므로, 안티오코스는 이것이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제 유대로부터 어떤 종류의 반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넬라오스는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약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성전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성전이 오랫동안 부의 보고 역할을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시민들 중 다수가 그들의 자금을 성전에 예금했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메넬라오스는 그 자금으로 스스로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가 자신의 상처를 받는 한 그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이집트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여덟 살짜리 아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집트 땅을 점령하기에 이상적인 때인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그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라, 그가 그곳에서 로마 장군과 한 무리의 로마 군대 외에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안티오크스, 이 사람은 안티오크스 4세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량되기 전에 로마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맞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언에 따라 이집트에서 철수하라는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저는 거의 만화 같은 종류의 일에 대한 멋진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정말 덩치가 크고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로마 장군이 칼을 뽑아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주변의 모래에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 물론이죠. 원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나 로마는 당신이 그 원에서 벗어나기 전에 당신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좋아요, 이제 안티오크스는 로마인들에게 굴욕을 당했고 이집트에서 철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인들은 어느 한 왕국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곡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글썄요, 그 사람은 다리 사이에 꼬리가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이런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서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동방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전 대제사장이자 오니아스 2세의 형제 인 야손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성전을 탈환할 기회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암몬 군대를 모아서 고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던 동일한 Tobias 가족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비아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안티오코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메넬라오스가 성전에서 폭행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그의 군대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아니요, 그는 로마인들에게 도전할 생각은 없었지만, 완고하게 유대인들이 그를 밀어붙이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글썄요,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접근했을 때, 제이슨은 침몰하는 배에서 쥐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는 즉시 예루살렘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더욱이 안티오코스는 여기서 문제의 일부가 유대인 특유의 종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의 칭호인 에피파네스는 발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사실, 그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일반적으로 제우스의 얼굴이 주화에 나타나는 일부 주화에서는 제우스의 얼굴 대신 자신의 얼굴을 배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지상의 제우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셀레우코스 제국과 공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친 종교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에서 유대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예루살렘 도시에 아크레라고 불리는 요새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커는 그리스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앙의 거대한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이 전체 기간 동안 주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 섹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요 탑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항상 유대인들이 대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커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꽤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종교적 박해인 마카베오서 2서는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생각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신들과 안티오코스를 지상의 그리스 신들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안티오코스를 그리스 신, 아마도 제우스로 대표하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국가 숭배가 예루살렘에 강요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유대인 법과 관습.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인 토라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거의 한 번의 처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 대사들은 유대 전역의 도시에서 도시로 파견되어 그 도시들에게 그리스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물론 안티오코스를 대신하여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의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하시 디안(Hasideans) 으로 알려지게 된 그룹입니다 . 하시디안 사람들은 주님 의 율법에 극도로 헌신했으며 백성에게 요구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저항군을 형성했습니다.

저항세력의 또 다른 주요 세력은 우리가 마카베오 가문으로 알고 있는 하스모니안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약간 잘못된 이름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대사들이 마타시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딘 마을에 왔을 때 장교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사장 맛다디아는 이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고, 맛다디아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안티오코스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마타티아스는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칼을 손에 쥐고 대신 그리스 장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 내 아들들아, 모여라. 주의 율법에 열심이 있는 너희 모두, 우리가 산으로 모여들자. 그래서 Mattathias 는 그의 가족을 모데네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들 역시 언덕으로 가서 저항군의 두 번째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마타티아스는 이 반란이 시작된 직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유다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의 별명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베오(Maccabeus)이다. 그의 망치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망치로 싸웠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칼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머리가 망치처럼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망치꾼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마도 망치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적을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카베오라는 이름을 얻은 곳은 유다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죽은 후 반란의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초기 반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게릴라전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하시데아, 하스몬파는 둘 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유대 주변 지역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동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인들과 협력하고 있는 모든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그리스 군대를 발견하면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처음에 약간의 작은 접전에서 승리했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서 그들 자신의 이름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하시딤파, 하시데파, 하스몬파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한 무리의 하시데아 사람들이 한 동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 군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그들에게 나와서 항복하거나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항복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동굴에서 그들을 모두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글쎄요, 하스몬주의자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할 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가만히 앉아 있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반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누구와도 기꺼이 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그들이 원칙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타협 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초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니우스라는 동료가 이끄는 소규모 군대가 유다 마카베우스에게 패배했는데, 유다는 아폴로니우스의 검을 빼앗아 '아, 좋은 검이구나' 하고 평생 그 검으로 싸웠습니다. 그의 망치 값은 이만큼이군요,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벳호론 곧 사론이라는 곳에서 그리스 군대의 대장이 된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엠마오 전투에 등장한 고르기아스와 니카노르라는 이름의 동료. 그리스 군대와 그리스 병사들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승리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끈질긴 전사이자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명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승리를 거둔 후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리시아스라는 동료를 셀레우코스 왕조의 섭정으로 임명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에서 일어난 이 반란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2년,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164 그들은 약간의 좌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 기록을 읽고 이것이 정말 쉬울 수 없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쉬웠을까요? 내 생각에 문제의 일부는 그리스인들이 여러 전선으로 나뉘어 있었고, 유대인 반란에 전념했어야 할 자원을 실제로 투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승리는 조금 더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64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하스몬 왕조가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중에 기록된 성전의 재헌납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성전을 재헌납하려면 먼저 그리스인들이 오염시킨 모든 물건, 즉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것이나 그 밖에 그들이 제물로 바쳤던 모든 것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야 하고, 그 안에 있는 제단도 철거해야 하고, 벽돌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지자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벽돌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종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대에도 예언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라고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벽돌을 쌓아두었고, 새로운 제단을 쌓았으며, 마침내 성전을 봉헌할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8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만든 특별한 기름인 기름을 조사해 보니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은 8일 동안 태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사용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기름이 8일 동안 내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재봉헌을 기억하는 하누카 축제에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기념되고 있는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기름에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석유를 더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썄, 기름을 만드는데도 특별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축복을 받아야 했고, 여기서는 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조에 필요한 전체 시간을 태워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하누카 축제가 요세푸스에 의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것을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는 실제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누카 축제는 사해 두루마리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휴일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사해 두루마리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누카였을 수도 있고, 그가 예루살렘을 지키러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암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누카가 순례자의 축제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누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7월 4일 독립 기념일 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가고 싶은 것처럼 하누카를 관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알겠어요? 물론 이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북쪽에서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파르티아인.

나는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후 로마인들에게도 가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5세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섭정으로 임명된 리시아스는 여전히 국가를 거의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원전 162년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실제로 하스모니아 군대가 겪은 최초의 대규모 패배였습니다. 베이트 스가랴 전투.

유다는 패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리시아스는 그를 추격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새로운 왕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도 안디옥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새로운 왕이 자리를 잡을 때마다 자동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왕좌에 대한 여러 주장자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아스는 안디옥으로 돌아가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시아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반역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북쪽에서 파르티아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 안티오크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내 자원을 여기에 투입할 가치가 정말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결정한 일입니다.

리시아스는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들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갈등의 성격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스모니아인들은 지금은 박해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자유 국가가 될 때까지는 미래에 그러한 사건의 위협에서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럼 화해 제의를 받아들이고 좋게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스모니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전투를 계속하고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몇 가지 정치적인 얽힘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시리아 정치와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정치적 얽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름을 모두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시죠?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Demetrius I이 있습니다. Demetrius는 Antiochus Epiphanes, Antiochus IV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를 둘 다 죽인다.

물론 이제 그는 왕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알키무스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Alcimus는 Hellenizing 파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유대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하스몬 왕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데메트리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글쎄, Demetrius는 이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데메트리우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매우 무시무시한 장군인 바키데스라는 동료의 지휘 아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철수됩니다. 그리고 그는 게릴라전을 재개합니다. 이 시점에서 셀레우코스 군대는 반란과 그곳의 모든 진압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갑니다.

글쎄, 데메트리우스는 니카노르라는 동료가 이끄는 또 다른 군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스모니안 군대에게 일종의 중요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군대가 아닷사 전투에서 그들이 치른 가장 큰 전투에서 니카노르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카베오서에는 그들이 여전히 그 날을 니카노르의 날로 기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달력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니카노르의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승리했을 당시 하스몬 왕조는 이를 매우 중요한 성취로 여겼습니다. 글쎄요, 유다 마카베우스는 20,000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규모가 작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동양을 정복하기 위해 4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소규모 군대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스모니안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20,000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의 군대가 이곳에서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마침내 그리스 군대에 맞서 쓰러진 것은 기원전 161년 엘르아자르 전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다음 사람인 그의 형 조나단이 즉시 나타나 하스모니아 반란의 지휘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나아갈 때, 반란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가올 하스모니안의 리더십이요.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하스몬 왕조는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하스몬의 반란입니다.